

금호산업 채권단 1300억원 출자전환 잠정합의

자본잠식률 50% 이하로...정상화案 마련 박삼구 회장 등기이사 선임 책임경영 구축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진행중인 금호산업에 대해 금호산업 채권단이 1300억원을 출자전환시켜 금호산업의 정상화를 막기로 했다. 15일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따르면 채권단은 지난 14일 금호산업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채권단은 이 자리에서 금호산업의 율

해 말 자본잠식률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정상화 방안에 잠정합의했으며 무담보 채권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어음(CP) 등 금호아시아나그룹 내에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의 6월 말 기준 자본잠식

률은 약 89%로, 연말 기준 정상화가 전액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 상장폐지 요건이 되고 50% 이상 자본잠식이 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상황이 폐지되면 금호산업은 신규 주주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금 회수도 불투명해진다. 이를 막기 위해 채권단은 보유중인 무담보 채권 약 508억원을 출자전환하고 금호산업 자회사(지분율 30.08%)인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는 금호산업 기업어음(CP) 790억원 어치를 출자전환(13.0%)하도록 허용

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은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된다. 채권단은 현행법상 상호출자를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금호산업의 손자회사이며 아시아나항공의 100%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에 넘기도록 할 예정이다. 출자전환과 지분 이전이 완료되면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터미널→금호산업'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다. 채권단은 이외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

해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상화에 성공할 경우 박 회장에겐 금호터미널 보유 지분 13%에 대한 우선 매수 청구권을 제공하는 등 경영권 확보를 도울 예정이다. 하지만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박 회장의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이 같은 방안이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다음달 중순까지 다른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계획이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임동률기자 exian@

도회 '에드가 5차 오피스텔' 남악 신도시 306세대 분양

남악 신도시 에드가 2차 오피스텔(남악리 2115) 바로 옆 부지에 에드가 5차 오피스텔 306세대의 대대적인 분양을 준비하고 있어 또 한번 남악의 주택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오는 30일 견본주택 개관 예정인 도회사의 '에드가 5차 오피스텔'은 전남도청 맞은편에 위치한 데다 전남지방경찰청과 전남여성플라자, 전남교육청 등 풍부한 수요자와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이 장점이다.



에드가 5차는 지하 2층, 지상 15층, 전용면적 29.7㎡(14.3평)·38.9㎡(18.8평)·59.3㎡(28.6평) 규모의 원룸, 투룸, 쓰리룸 형식의 '아파트' (Apartel)로, 아파트의 편리함에 오피스텔의 장점이 결합한 주거형 오피스텔 306세대로 구성됐다. 특히 기존의 오피스텔에서 보기 어려운 투룸, 쓰리룸 공급이 많은데다 아파트처럼 발코니를 마련해 편리함을 더했다. 마감재에도 관심을 기울여 친환경 자재에 열전도율이 뛰어난 강화 마루바닥을 사용했고, 넉넉

한 수납공간과 수납장을 고급 하이그로시 장으로 선택했다. 오피스텔이 위치한 전남도청 앞은 30m 주도로와 남악 나들목을 통한 광주 및 서울 진입이 빠르고,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의 시발점으로 승선, 광양, 장흥 등지의 연결도 쉽다. 도회 에드가5차 오피스텔 주택전시관은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55번지 한양프라자 5차에 마련됐다. 문의(061-261-0008~9).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학원·예식장·성형외과·변호사... 고소득자영업자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당장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제·세정상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물론 국세청은 종전에도 고소득자영업자들을 별도로 관리해 왔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변리사, 법무사, 유흥업소 종사자,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대상이다. 최근 2년간 고소득자영업자의 탈루액은 3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태다. 정부가 대대적인 민생정혜

사범, 역외탈세자와 함께 고소득자영업자를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일단 국세청은 조사인력이 한정된 만큼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올해부터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 온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의 강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체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이 무엇보다 주시하는 것은 수입이나 병원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명 계좌에 입금해 소득에서 누락하는 행위, 친·인척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이다. /최재호기자 lion@연합뉴스

지방 아파트값 25주만에 하락 전국 전세가는 51주 연속 상승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이번 주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약세가, 전세가격은 강세가 지속됐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05% 떨어져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전세가격은 0.22% 올라 51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0.08%)의 경우 11주째 하락했고 지방(-0.01%)은 25주 만에 하락세로 전

환했다. 제주(-0.17%), 대전(-0.14%), 서울(-0.12%), 울산(-0.11%), 세종(-0.11%), 전남(-0.08%) 등 순으로 값이 내렸고 대구(0.13%), 경북(0.08%) 등은 올랐다. 서울(-0.12%)은 12주 연속 하락세를 유지했다. 구별로는 금천구(-0.26%), 중구(-0.24%), 마포구(-0.23%), 성동구(-0.23%), 노원구(-0.22%), 영등포구(-0.22%) 등 순으로 값이 내렸다. /연합뉴스

동부대우 소형가전 사면 경품이 와르르

싱글가전 사은행사

싱글 가전시장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동부대우전자가 제품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프리미엄 싱글 가전' 사은행사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프리미엄 싱글 가전' 이벤트는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mini)와 소형 콤팩트냉장고 '더 클래식'(The classic) 등 동부대우전자의 대표 '프리 미니'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소비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권(1명), 50만원권(2명), 영화관람권 2매(100명)를 증정한다. 이벤트 당첨 결과는 9월13일 동부대우전자 홈페이지(www.dwe.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이달 말까지 벽걸이 세탁기와 냉장고 등 프리미엄 소형 가전 제품 구매 시 최대 100만원을 돌려주는 '프리미엄 싱글 가전' 사은행사를 진행한다. <동부대우전자 제공>

이외에도 북고풍 디자인이 적용된 콤팩트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류를 묶은 구매하면 전자레인지 가격의 30%를 할인해주는 '플러스 페스티벌'도 함께 진행한다. 광주에 생산공장을 둔 동부대우전자는 2009년 7kg 드럼세탁기를 시작으로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 전자레인지 등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족을 위한 싱글 가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작지만 대형 가전제품의 성능 못지 않은 프리미엄 싱글 가전을 잇따라 선보이며 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수출 내리막길

1~7월 181만대로 지난해보다 6.6% 감소

자동차업계의 국내 생산이 줄고 해외생산이 늘어나면서 국내 완성차의 수출이 내리막길을 걷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7월 국내 완성차의 수출량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6% 감소한 181만2796대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대자동차의 수출량은 8.7%가 줄었고, 기아자동차는 4.1%, 한국 GM은 4.8%, 르노삼성차는 35.8% 감소했다. 쌍용자동차만 수출이 9.8% 늘었음을 보인다. 이에 따라 1~7월 완성차 수출액은 281억4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억3000만 달러)보다 2.1% 줄었다. 그러나 고부가가치 차량의 수출 증가로 완성차 평균 수출가격이 작년 상반기 1만3640달러에서 올 상반기 1만4366달러로 5.3% 오른 것이 수출

액 감소폭을 어느 정도 상쇄했다. 이 같은 자동차 수출의 감소는 해외 불확실성의 증가, 연화 절하 추세 같은 요인 외에도 국내 공장의 생산 물량 감소와 해외생산의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대·기아차가 상반기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은 작년 상반기보다 19.5%나 늘었다. 현대차는 상반기 중국 베이징공장 생산량(51만263대)을 작년 동기 대비 41.3% 늘리고, 미국 공장 생산량(21만413대)을 18.9% 증대시키는 등 현지 생산물량을 21.8%나 늘렸다. 반면 국내 공장에서의 완성차 생산은 작년 1~7월 273만7천965대에서 올해 1~7월 261만8023대로 4.4% 감소했다. 업체별로도 쌍용차만 19.8% 늘었음 뿐 현대차 -5.3%, 기아차 -3.8%, 한국GM -2.7%, 르노삼성 -26.0% 등으로 뒷걸음질쳤다. /연합뉴스

hello tv

헬로tv 가입하시면 반값!

LG LED TV

42형

LG 전자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판매가 999,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477,400원
(VAT 포함가)

23형

LG 전자

일반 가전매장 판매가
판매가 277,000원

헬로tv+헬로넷 가입시
0원

카사닉 IPS패널 Full HD LED TV | LED TV의 뛰어난 색 표현력 | 헬로tv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합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

전여세대
분양중

지리산 노블랜드

산 좋고 물 좋은 **백운산 400고지**

콘도/팬션/별장/요양시설
귀농자, 요양자 10%할인
국유지 필요평수 임대 가능
(산삼, 약초, 산나물, 텃밭 사용)
화개장터, 썬게사, 화약사, 노고단 근접

분양가격(공유면적 포함)	대출가능금액
18평(28실) 6840만원	18평 3000만원 가능
28평(26실) 1억 640만원	28평 5000만원 가능
56평(1실) 2억 1280만원	56평 1억원 가능

등기이전 및 상담 - 김주현 법무사
H. 010-4451-6686 / 법무사 직접상담

지리산노블랜드 분양 /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직통 : 010-3605-5000 / (주)오천경매